

## “이왕 악역 하는 거 최고가 돼야죠”

나만의 악녀 영역 구축하고 싶어 시청자가 욕하면 연기 잘하는 것 모성에 자극하는 캐릭터 도전 꿈

‘악녀 전문’. 어쩌면 여배우들이 싫어하는 타이틀 중 하나다. 강렬한 인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최고의 효과가 있지만, 거듭된 악역 연기로 자칫 이미지가 굳어지거나 시청자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악녀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싶은 건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다.

이채영(33)도 같은 고민을 했다. 20대에는 ‘악녀’ 이미지가 굳혀질까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까지 했다. 25일 종영한 KBS 1TV 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에서도 그는 온갖 악행을 일삼아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한마디로 여성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

드라마가 끝나기 이틀 전인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동아 편집국에서 만난 그는 악녀의 단점과 한계를 초월한 듯(?) 먼저 호탕하게 웃었다.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악역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요. 악역은 드라마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렇다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악역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4월29일 첫 방송을 시작해 6개월 동안 방송하는 내내 시청률(최고 25.2%·닐슨 코리아)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비난과 원성은 커져만 갔다. 그럴수록 시청률은 정비례로 올랐다.

이채영의 악녀 연기가 빛을 발해서일까. 악플이 수없이 쏟아져 오히려 주위에서 그를 걱정할 정도다. 그러나 그는 여유가 넘쳤다.

“세상이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했어요. 시청자가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부들부들’ 떨면 더 좋은 거죠. 연기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노하우는 아

니지만 흥미를 갖고 (악역을) 공부하고 즐기는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하하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채영의 ‘생각의 변화’는 시청자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연기자의 역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출연작이 현재까지 적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 표출을 제대로 했을 때 시청자와 소통이 제대로 됐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착한 캐릭터와 나쁜 캐릭터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제 욕심 때문에 자신 없는 역할을 무리하게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에 최고의 위치는 아니지만(웃음) 긴 공백 없이 연기하고 있어요. 잘 하는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채영은 2007년 드라마 ‘마녀유혹’로 데뷔해 10편 이상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하나의 모습에 머물러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린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다”는 그는 “조각이 깎이고 깎여 예술품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더 풍파를 겪으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완성된 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연기자로 살아가는 길은 장기 마라톤과 같아요. 여배우 반열에 들어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경험을 많이 쌓아 모성을 자극하는 캐릭터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일터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역시 집이다. 2009년부터 독립해 살고 있는 그는 최근 이사했다. 때마침 드라마가 끝나면서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 낙을 즐기고 있다.

“일이 없을 때는 가능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촬영 중에는 주로 바깥에서 식사를 해결해 집에 있을 때에는 최대한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반찬만 들거나 집안 곳곳 인테리어하고, 동네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 제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죠.”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이채영은 한때 악역을 맡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악녀 부문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부른 꿈을 안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연예뉴스 HOT 4

#### 진태현·박시는 부부, 성인 딸 입양

연기자 진태현·박시는 부부가 딸을 입양했다. 진태현과 박시는 28일 SNS를 통해 “2015년 8월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고등학생인 세연이를 처음 만났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모, 삼촌으로 지내왔고, 방학 때마다 제주도와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 이미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혼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성인인 딸을 입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응원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도박 논란’ 슈, 내달 일본 솔로 데뷔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7)가 일본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한다. 엠엔프레스 등 일본 언론은 슈가 11월27일 솔로 데뷔 음반 ‘아이 파운드 러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5일에는 도쿄 키치조시 한 클럽에서 솔로 데뷔 기념 라이브 콘서트도 연다고 덧붙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 선미·유상무 등 악플러에 적극 대처

연예인들이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수 선미는 최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한 누리꾼 12명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미의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28일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2차 추가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그맨 유상무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에 대해 법원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16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유상무에게 ‘쓰레기’라는 표현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70만 원과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 봉준호,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올해 제9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11월6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앞서 5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영화예술인 부문에 봉준호 감독, 공로예술인 부문에 배우 김지미, 연극예술인 부문에는 배우 정동환, 국악예술인 부문에는 국내의 자선단체 흥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신인예술인 부문에는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을 선정했다.

## ‘시리즈 배우’ 권상우의 새로운 도전

내달 7일 ‘신의 한 수2’ 개봉 앞둔 “내 영화 인생 터닝 포인트 될 작품”

배우 권상우가 ‘시리즈의 배우’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 최근 영화계에서 시리즈 영화 제작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그 중심에서 돌보이는 활약을 이어간다.

11월7일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감독 리건·제작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을 내놓는 권상우는 바둑을 매개로 벌이는 운명의 승

부를 그린다. 2014년 정우성이 주연해 356만여 관객 동원에 성공한 ‘신의 한 수’를 잇는 후속편이다.

권상우의 시리즈 영화 참여는 처음이 아니다. 범죄 코미디물 ‘탐정’ 시리즈를 자신의 대표작으로 꾸려가고 있다. 성동일과의 유쾌한 콤비 플레이로 2015년 처음 내놓은 ‘탐정:더 비기닝’(262만 명)과 지난해 공개한 후속편 ‘탐정:리턴즈’(315만 명)의 흥행을 이끌었다. 3편 제작도 궁정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의 한 수2’



‘시리즈의 배우’ 권상우가 영화 ‘탐정’에 이어 개봉을 앞둔 ‘신의 한 수2’의 주연을 맡고 관객과 만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까지 내놓는 권상우는 시리즈 영화의 중심에 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시리즈마다 캐릭터와 장르, 보여주는 매력은

전혀 다르다. ‘탐정’ 시리즈에서는 좌충우돌하는 생계형 탐정의 모습이었던 이번에는 묵속까지 내건 처절한 복수극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권상우가 ‘신의 한 수2’에 갖는 각오도 남다르다. “최근 남성 영화나 액션영화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목말랐고 열정도 가득 찬 상태였다”고 밝힌 그는 “바로 그때 출연 제안을 받았고, 나의 ‘영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될 작품”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신의 한 수’ 1편처럼 2편도 고난도 액션과 바둑을 접목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부 이래 처음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권상우는 현란한 액션 연기까지 소화한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엠넷, 이 와중에 또 오디션 프로?

10대 대상 ‘십대 가수’ 출연자 모집 ‘프듀X’ 경찰 수사 한창…비난 쇄도

또 시작이다.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조작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를 방송한 엠넷이 내년 방송을 목표로 새 오디션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엠넷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대가 부르고 10대가 직접 뽑는 뉴제너레이션쇼’라는 설명과 함께 새 프로그램 ‘십대 가수’의 시작을 알렸다. 구체적인 방송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제작진은 전국의 10대를 대상으로 출연자들을 모집 중이다. 28일 제작진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노래를 사랑하는 10대(2010년~2001년생)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11월24일까지 출연자들을 모집해 출연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0대들의 합창 경연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던 ‘고든래퍼’가

시존3까지 모두 성공을 거두자 10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오디션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가장 최근 막을 내린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정황을 일부 포착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고, 또 다른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도 투표 조작, 제작진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오디션 자체에 대한 공신력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을 시작해 대중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불신의 벽이 높아진 상태에서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기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수습도 하기 전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반응부터 “또 눈속임으로 시청자들을 속일 셈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제는 10대들의 등을 치려고 한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제작 논란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10대들이 뽑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심사위원 선정이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